

**리디북스, 죽은 책도 살리는 ‘책 끝을 접다’ 인수**

- 1등 전자책 플랫폼 리디북스, 1등 SNS 도서 마케팅 채널 ‘책 끝을 접다’ 인수

- 이번 인수로 국내 도서 마케팅에 새바람

**2018년 6월 18일** – 전자책 업계를 선도하는 리디 주식회사(<https://www.ridicorp.com>, 대표이사: 배기식) 가 지난 6월 15일 ‘책 끝을 접다’를 운영하는 ㈜디노먼트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리디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리디북스’는 스마트폰 도입 초기부터 전자책 시장을 이끄는 선두주자 역할을 해왔다. 특히 2015년 전자책 단말기 ‘페이퍼’ 출시를 시작으로, 지난 해 12월 후속 제품인 ‘페이퍼 프로’로 독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책 끝을 접다’는 책 소개 콘텐츠를 카드 뉴스와 북 트레일러 형태로 제작해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 채널을 통해 알려왔다. 특히 양 사는 올해 초부터 협업을 이어오며 성공적인 마케팅 사례를 만들어왔다. 한동안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던 도서도 ‘책 끝을 접다’ 채널을 통하면 다시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르는 이른바 ‘죽은 책도 살리는’ 결과를 보여주며 온라인 도서 마케팅의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리디북스는 이번 인수로 국내 1등 도서 마케팅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한편, 독서 인구의 확장과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6월 18일부터 ‘책 끝을 접다’의 기존 운영진은 리디 주식회사에 합류하게 되며, 기존 출판사와도 계속해서 협력해 다양한 책들을 대중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리디 주식회사 배기식 대표는 “리디북스라는 전자책 서비스를 출시한 이래 '사람들이 독서를 더욱 사랑하도록 돕는 회사'로서 사명감을 갖고 여러 가지 가능성과 기회를 검토해 왔다”며, “‘책 끝을 접다’와 함께 더 많은 독자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알리며, 도서 시장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전했다.

㈜디노먼트 박종일 대표는 “’책 끝을 접다’는 독자들이 책을 발견하고 즐기도록 돕는 데 큰 의의를 둔다. 따라서 독서 경험의 확장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리디 주식회사와 함께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기회"라고 전했다. 또한 “이 기회를 통해 리디 주식회사의 탁월한 인력과 기술력, 그리고 매력적인 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며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 # #

**리디 주식회사 소개**

리디 주식회사([https://www.ridicorp.com](https://www.ridicorp.com/))는 전자책 업계의 독보적인 선두 기업으로, 독서 경험의 확장을 선도하고 있다. 차량이 자율주행차로, 시계가 스마트워치로 진화하는 등 스마트 기기가 일상에 자리잡은 가운데, 독서의 새로운 양상을 제시하며 독서 인구의 확장에 주력한다.

2008년 설립된 리디 주식회사는 다년 간 R&D에 집중해왔으며, 우수한 기술 역량에 기반해 개발된 must-use 서비스 및 제품을 제공한다. 리디북스(<https://ridibooks.com>)는 국내 최초 스마트폰 전자책 서비스로 폭넓은 분야의 일반 서적, 잡지는 물론 만화와 장르소설까지 아우르는 풍성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플랫폼이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든 디바이스에서 즐길 수 있다. 페이퍼 프로(PAPER PRO)는 국내 최초 7.8인치 전자책 단말기로 뛰어난 사용자 경험(UX)을 제공한다.

**㈜디노먼트 소개**

디노먼트는 모바일 콘텐츠를 통해 책을 소개하는 콘텐츠 마케팅 스타트업이다. SNS 채널 ‘책 끝을 접다’를 운영하고 있으며, 책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을 콘텐츠로 제작해 2030 밀레니얼 세대에게 책을 소개하고 있다.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SNS의 팔로워는 60만명에 달하며, 책 읽는 즐거움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